

# “김실장 당장 교체 안해… 정윤희씨 국정 근처에도 온적 없어”

〈김기춘 비서실장〉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집권 3년차 신년기자회견에서 회견문과 질의 응답을 통해 다양한 정국현안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진솔한’ 소통의 노력은 있었지만, 청와대 인적쇄신과 인사타령 등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주요 이슈들의 경우 단일한 상황인식으로 시원한 답변이 없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쟁점별로 박 대통령의 발언과 의미를 요약했다.

## 인적쇄신·측근비리

박 대통령은 떠밀리듯 이뤄지는 청와대 및 내각 진용 개편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선 핵심비서관 3인방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여주면서 인적쇄신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항명 파동으로 책임 추궁이 예상됐던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항명파동이

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실장의 지휘책임 부담을 덜어줬다. 다만, 김 실장의 경우 당장 교체는 안되 국정이 안정되는 대로 교체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향후 청와대 시스템 개편 등과 맞물려 비서실장 교체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특보단 구성 등 청와대 시스템 개편에 방점을 찍으며 기능 재편에

따른 인사이동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비선실세 논란에 대해서는 “정윤희씨는 벌써 수년 전에 저를 돕던 일을 그만두고 제 곁을 떠났기 때문에 국정 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실세는커녕 전혀 관계가 없다”며 “실세나 아니냐에 답할 가치도 없다. 실세가 될 수 없고 오래 전에 떠난 사람”이라고 단언했다.



시선 집중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신년 구상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필요 때마다 내각과 언제든지 만나 얘기 나눠”

### 불통 논란

대국민·대정치권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과 관련한 질문에 “정치권과는 여야 지도자를 청와대에 모셔서 대화도 갖는 그런 기회를 좀 많이 가지려 했는데 여러 차례 딱지를 맞았다고 그래야 하나, 초청을 거부하는 일도 몇 차례 있었다”고 박 대통령은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장관들이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 여러분은 법률이 정한 대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자기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임면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고위공무원의 적격성 검증은 제외하고는 실질적으

로 전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장관의 대면보고 부족 등 내각과의 불통 지적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만나서 얘기 듣고 그러다”며 “대면보고, 필요하면 독대, 앞으로 그런 부분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했던 대면보고를 좀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살펴 보겠다”

### 특정지역 인사 소외

박 대통령은 “일부 지역 출신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인사소외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 국민통합 차원에서 인사 대 탕평책을 펼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인사 문제는, 저는 능력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인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제가 이 힘든 국정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한 뒤

“능력있고 도덕성에서도 손가락질 받지 않는 인재를 찾는데 저만큼 관심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그만큼 인재를 적체적으로 배치한다는 원칙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유능하지도 않고 감당할 수 없는데 특혜 받는다, 이런 것은 말도 안 되고 또 반대로 특정 지역이라고 해서 능력이 있는데도 차별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

역 관심없이 유능한 인재를 찾는데 관심이 있는데, 지금 질문하신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편차가 있다고 하면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어떨 때는 이쪽으로, 또 어떨 때는 저쪽으로 가는 때도 있는데, 제가 다 살펴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며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 박차”

### 개혁·개헌

3년차 핵심 국정과제인 4대 구조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위한 의지도 밝혔다. 먼저,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다”며 “우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를 추진해 다른 부문개혁을 선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특히 금융부문에 대해 “담보나 보증위주의 낡은 보신주의 관행부터 타파해야 한다”며 “에티비 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 결과 국내소비자의 해외직구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비해 해외소비자의 국내 직구는 걸음마 수준”이라고 지적하는 등 구체적 방안까지 내놨다. 이어 박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헌 추진 여부와 관련, “계속 갈등 속에서 경제문제, 시급한 여러 문제는 다 뒷받침해 가버리고 그것만 갖고 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지금 개혁을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크게 미치고 국민이 불편할 것은 아니다”고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수도권 규제 완화 올해는 해결 하겠다”

### 수도권 규제·지방분권

이날 회견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묻는 질문에 대해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도 수립을 통해 만들어서 이 규제 부분도 좀 해결을 올해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박대

통령은 말했다. 또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선 “지방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다 지방에다 넘기고 그걸 뒷받침도 해 주는 방향으로 간다”며 “지방일,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에서 제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면 중앙에서

뒷받침하고 힘을 해 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입법적인 노력, 또 중앙정부의 협력,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다”며 “거기들 중심으로 해서 잘 논의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경제’ 42차례 언급… 기자들 책상없이 의자에 앉아 경청

### 회견장 스케치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 ‘경제’를 42차례로 가장 많이 언급하며 글로벌 경제위기 속 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 재도약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유독 강조했다. 또 비교적 여유 있는 자세로 기자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국민’이라는 단어도 39차례로 경제와 비슷하게 자주 언급됐으며, ‘나라·국가’도 16차례나 거론됐다. 특히 ‘성장’ 16차례, ‘개혁’ 13차례, ‘혁신·규제’ 각 11차례 등

로 강력하고 끈질긴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를 통해 경제 혁신·도약을 이루고 향후 30년의 성장 기반을 닦아 나가겠다는 방점을 찍었다. 이날 내외신 기자 120여명이 회견장을 빼곡히 채워 박 대통령의 집권 3년차 회견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다만 기자들이 책상 앞에 앉아 일부는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기사를 작성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책상 없이 의자에 앉아 좀 더 가까워서 박 대통령을 둘러싸고 회견을 경청하고 질의응답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의 회견내용에

대해 새누리당은 긍정 평가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난을 쏟아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신(新)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실천적 청사진을 제시했다”면서 “특히 청와대 문건 파동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고뇌에 찬 자성을 쇄신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유희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반성과 사과는 없고 대통령이 남 탓만 하고 있다”며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분은 박 대통령 자신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회견”이라고 맹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0억 원까지**

#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                            |   |
|----------------------------|---|
| 근린상가, 단독주택<br>나대지, 원룸      | 담보 비율: 최대 70%<br>최저 연 3.8%~                                     |
| 신용대출<br>(급여소득자)<br>(연금수급자) | 대출한도: 최대 5,000만원<br>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br>대출기간: 최대 5년<br>연금리: 최저 7.0% |

**MG새마을금고 빛고을**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옆)  
상리점 062)525-2776~7 (상리동 고려고등학교 옆)

**경축**

## 전라남도 음식문화개선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 대통령 기관표창 수상

반찬 덜어먹기 등 깨끗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 기여

**「남도좋은식단」 4대 실천강령**

- ① 먹을 만큼 적정량 제공하기(재탕금지)
- ② 집게·국자·앞 접시 제공하기(덜어먹기)
- ③ 개인별 위생찬기 제공하기(개별찬기)
- ④ 주방개방 및 화장실 청결관리(청결관리)

한국외식업중앙회전라남도지회 회원 일동